

주디스 버틀러의 권력론에서 정동적 가능성 혹은 한계*

—‘좋은 삶’에 대한 로런 벌랜트의 논의를 중심으로

박 상 현
(연세대학교)

◆ 국문초록

본고는 권력에 대한 주체의 양가감정으로부터 저항 가능성을 도출하는 버틀러의 이론적 모델을 비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버틀러는 양가감정이 주체와 권력 간의 관계를 상연하는 정신적 징표라고 주장한다. 주체는 권력의 부름에 맹목적으로 응답하지 않는다. 자신의 사회적 삶을 존속하기 위해 주체는 권력에 불가피하게 예속될 수밖에 없다. 버틀러는 수용과 거부의 이중적 감정으로부터 주체가 권력과의 비판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고는 권력에 대한 정동적 애착으로부터 저항 가능성을 모색하는 버틀러의 모델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권력이 주체에게 ‘좋은 삶’으로 상연된다는 것에 주목한다. 한편, ‘좋은 삶’은 가족, 결혼, 소비와 같은 이성애 규범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적 이상이다. 벌랜트에 따르면, ‘좋은 삶’은 주체에게 오직 근접했다는 느낌만을 제공할 뿐 끝내 도달 불가능한 환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는 ‘좋은 삶’에 대한 애착을 거두지 않으며, 도리어 지속적으로 자기 열망을 투여한다. ‘좋은 삶’에 대한 정동적 애착 아래 죄책감은 쉽게 저항의 계기가 되지 않는다. ‘좋은 삶’에 대한 공유된 열망 아래 권력과 주체 간의 정동적 관계가 친밀한 주체들 간의 관계로 치환되기 때문이다. 이에 권력에 대한 저항은 당장에 친밀한 주변인들의 열망을 위협하고 저지하는 배신 혹은 배반으로 간주된다. 권력이 ‘좋은 삶’이라는 표상으로 주체에게 각인되는 한 주체가 양가감정을 품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이는 권력에 대한 사유의 확장을 요구한다. 권력은 인식론적 층위에서

* 본고는 필자의 석사학위논문 <권력 작용으로서 ‘좋은 삶’과 정동적 애착의 문제>의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한 글입니다.

만 작용하지 않는다. 권력은 주체에게 감각하고 느낄 수 있는 현실로, 특히 친밀한 주변인의 '얼굴'로 나타난다. 권력에 대한 사유는 인식론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존재론적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본고는 주체의 사회적 실존을 둘러싼 복잡한 정동적 지형을 분석함으로써 권력과 주체의 관계를 존재론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주제어 : 권력, 연속적 주체화, 정동적 애착, 좋은 삶, 주디스 버틀러, 로런 벌랜트

1. 양가감정의 정동적 가능성 혹은 한계

권력과 규범은 그 정당성을 수호하기 위해 언제나 제제를 동원하지만, 그것은 단지 때서운 경찰의 일도, 엄정한 법의 일도 아니다. 규범에서 이탈했다는, 규범적 삶을 위배했다는 사실은 앞서 우리의 내면에서 감각된다. 버틀러(2019)는 알튀세르가 자신의 아내 엘린을 살해하고 경찰의 부름에 응답하다 못해 오히려 거리에 뛰쳐나가 경찰을 부르는 장면의 함의를 묻는다. 알튀세르는 왜 경찰이 자신을 잡으러 오기도 전에 그 자신의 죄를 고해하고 마는가. 알튀세르는 아마 우리가 권력에 '항상-이미' 예속되었기 때문이라며 답변을 일축할 것이다. 이미 권력에 예속된 주체에게 거부할 수 있는 목소리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외려 알튀세르는 태초의 부름이 있기 전 원초적인 주체를 가정하는 일이 끝내 무한히 이어진 계단을 거니는 “회고적 환상(retrospective illusion)”(Althusser, 1996)에 불과하다며 비판한다. 그러나 버틀러(2019)는 “수취하는(권력의 부름에 응답하는) 편에 어떤 자발성이나 예상적[선행적](anticipatory) 욕망이 없다면 이러한 이름 부르기는 성공할 수 없다”(164)고 말하며, 지속해서 그 돌아섬의 시원을 궁구한다. 주체는 권력과 규범에 어떻게 그리도 강렬한 애착을 보일 수 있는가. 가령, 주체는 자신을 ‘난잡하고’, ‘일탈적이며’, ‘나쁜’ 존재로 폄훼하는 목소리를 그저 수궁할 뿐인가. 버틀러가

『권력의 정신적 삶』에서 주체의 ‘양심(conscience)’, ‘죄책감(guilt)’을 문제계로 설정한 것은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인식이 주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교환 속에서 호명(사회적 주체의 담론적 생산)이 발생한다. 그런데 의미심장하게도 알튀세르는 목소리가 그 또는 그녀에게 전달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 목소리에 의해 실행되는 종속화(subordination)와 정상화[규범화](normalization)를 인정하면서도 개인이 돌아서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단서를 제시하지 않았다. 왜 이 주체는 법을 향해 돌아서는 것일까? 그리고 사회적 주체를 출발시키는 데 있어 이러한 돌아섬의 효과는 무엇일까? 이는 죄의식을 가진 주체일까?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이는 어떻게 죄의식을 갖게 된 것일까? 호명이론은 양심에 관한 어떤 이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닐까?

(버틀러 지음, 강경덕·김세서리아 옮김 2019:18)

언뜻 권력에 예속된다는 사실이 무시무시한 군주와 늘 두려움을 안고 사는 시민의 얼굴로 그려지지만, 그것이 기실 권력과 주체 간의 침범할 수 없는 위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외려 권력은 주체의 사회적 삶을 보증해주는 이른바 실존적 매개로서 필수불가결하다. 제 존재를 부인하고, 의도를 곡해하며, 자신의 사랑에 대해 모욕하는 담론에 불구하고, 주체가 이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담론적 모욕의 자리가 동시에 자신의 사회적 삶을 연명하게 하는 자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자기만 알 수 있는 언어는 자기만 안다는 이유로 현실로부터 탈락된다. 사회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고유한 대상을 배반하면서, 독특했던 대상을 반복 가능성의 체계 안”(김민호, 2024:66)으로 밀어넣는 일에 관한 것, 데리다(2014:177) 식으로 표현하면 사회적 존재로 살기 위해 자신의 고유성을 ‘망각’하고, ‘배제’하거나, ‘살해’할 수밖에 없는 일의 연속인 것이다.

사회적 삶기 살기 위해 권력에의 예속이 위한 불가피한 것이라면, 그

것은 한편으로 권력의 근원적 한계를 암시하는 것이다. 권력과 규범에 대한 주체의 애착은 권력이 자신의 사회적 삶을 보증한다는 ‘최선의 믿음’을 통해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권력이 그럴듯한 설명력을 제공하지 않고 주체의 삶을 더 이상 통약 가능한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권력은 그 정당성을 잃어버린다. 즉 권력이 권력으로 존속하기 위해선 주체로 하여금 끊임없이 예속에 대한 확인을 이끌어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은 권력에게 ‘아직’ 포섭(규정)되지 않은 것들을 포섭하는, 잠재태를 현실적인 무엇으로 바꾸는 일이 된다. 주목할 것은 그것이 권력 자체로는 불가능하며 언제나 타자와 그 수행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주체는 사회적 삶을 살기 위해 권력에 예속될 수 밖에 없지만, 권력 역시 제 정당성을 연장하고 창출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주체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버틀러(2019)는 서로에 대한 이러한 불가피함이 주체와 권력의 ‘공모적 관계(complicity)’를 입증한다고 주장한다. “주체 형성의 선행적 조건이자 본질적인 조건으로서 권위적인 호명에 응답하는 어떤 자발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발성은 사람들이 이른바 대답을 하기 전에 이미 **그 부름의 목소리와 관계**하고 있으며 나중에 굴복하게 될 권위에 의한 활성화 오인(animating misrecognition)이라는 조건 속에 이미 연루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또 이 존재는 뒤돌아서기 전에 이미 항복하고 있었으며 뒤돌아서는 것은 단지 종속 과정의 **불가피한 표식**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165, 강조는 인용자) 일상화된 권력, 자연화된 규범은 그것으로부터 이탈한 이들로 하여금 그 자신의 존재성에 대해 끊임없이 반성하게 하고, 행위가 정당한지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지만, 그러한 인식론적 책무는 권력에 또한 마찬가지로 부과된다.

르 블랑(2018)은 이러한 버틀러의 지적 작업에 대해 “권력과 주체 사이의 관계를 면대면 관계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권력에 대해서도 이 주체와 권력의 관계 자체가 이 둘에게 구성적인 것”(314)임을 밝히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주체와

권력은 결코 분리되지 않으며 그것은 서로를 구성하고 보증한다는 것이다. 옹방쿵(2020)은 주체와 권력의 관계성을 모색하려는 버틀러의 시도가 소위 알튀세르식 ‘병리적(pathologique)’이고도 ‘가차 없는(implacable)’ 구조(이데올로기)로부터 빗겨나갈 여지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321). 과연 개인은 권력에 대한 예측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 옹방쿵은 버틀러가 예측적 주체화 이론을 전개하며 “[그렇게는] 있지 **않으려는(ne pas être)** 어떤 의지를 구성”(322)한다고, 즉 “비판적인 탈-주체화”의 가능성을 모색한다고 역설한다. 그러나 그러한 의지는 공주를 구하기 위해 용을 무찌르는 기사의 의지처럼, 인류를 위협하는 외계인에 대적하는 슈퍼맨의 의지처럼 선명하고도 순수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존을 보장하는 양식—이때의, 양식은 ‘권력 작용’을 지칭한다(인용자)—과 면대면(vis-à-vis)”(322)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우리가 권력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다고 할 때, 이는 권력이 단지 추상적이기 때문이 아니다. 외려 권력이 주체를 예측시키는 만큼 주체 역시 예측화의 과정에 동참(‘공모’)하기 때문이다. “주체가 완전히 권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또 주체가 권력을 완전히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버틀러, 2019:36)

권력과 주체의 공모적 관계로부터 권력에 대한 주체의 애착은 ‘양가적(ambivalent)’이라고 할 수 있다. 권력에 예측되기를 저항하면서도 예측될 수밖에 없는 역설이 주체의 정신적 삶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버틀러(2019)가 생각하기에 양가감정에 기반한 예측적 주체화의 과정은 언제나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주체는 그 주체를 발생시킨 권력으로 결코 온전히 환원될 수 없으며, “행위성(agency)은 그것[행위성]을 가능하게 만드는 권력을 초월한다”(32). 가령, 과거 동성애를 폄하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던 ‘퀴어’가 그 당사자들의 집단적 호명으로 인해 ‘저항’, ‘전복’, ‘전회’를 의미하는 언어로 재전유된 것에서 보듯, 권력이 의도하는 규범적 삶은 모방(재생산)의 과정에서 언제나 미끄러지며 그 의도를 반역할 가능성을 배태한다. 버틀러가 『젠더 트러블』에서

고심했던 소위 ‘젠더라는 불안’¹⁾ 역시 예측적 주체화의 한계를 사유하기 위한 지적 작업의 연장선 상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징계가 정리(명령)하는 데 실패한 것이 혼란의 형태로 상상계에 출현”하기 때문에 정체성은 상징계에 의해 결코 “총체화될 수 없”(144)다던 버틀러의 언설을 떠올릴 수 있다.

권력에 대한 주체의 애착은 그 양가적 특성으로 인해 언제나 권력에 대한 저항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 양가감정에 대한 버틀러의 신뢰는 그것이 “우리를 자신으로부터 떼어내고, 타인과 묶고, 환희에 이르게 하고, 와해하고,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삶에, 치명적이지는 않더라도 불가역적으로 휘말리게”(Ibid, 2018:54)한다는 점에서 비롯한다. 합법성이나, 권력의 이름으로 아직 정초되지 않은 감정들이 “우리가 세상을 특정한 방식으로 지각하게 하여, 세상의 특정 차원은 받아들이고 다른 차원에는 저항하도록 우리를 성향화”(Ibid, 2024:67)하게 한다는 것이다. 현존하는 담론을 견지하고서는 온전히 설명할 수도 포섭할 수도 없음에도, 버젓이 하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자연[과학]적 질서’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여느 말이 무색하게 담론이 결코 자기 충족적인 방식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방증한다. 담론적 질서는 그것을 위배하는 이에게 가하는 담론적 처분과 그에 따른 존재의 상흔 위에 구성된다. 담론의 정당성이 자기 긍정이 아닌 타자에 대한 부정을 통해 확보되는 양상은 담론의 구성적 한계를 폭로한다. 현존하는 담론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지속해서 그것에 파열을 일으키는 파르마콘(pharmakon)의 존재들, 버틀러가 소위 ‘구성적 외부(constitutive outside)’라고 부른 것은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와 같이 반드시 특정 물리적 존재일 필요는 없다. 이는 권력에 대한 주체의 양가감정을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 버틀러가 권력에 대한 양가감정으로부터 권력에 대

1) 루인의 다음의 논문에서 그 표현을 빌려왔다. -루인(2010), 「규범이라는 젠더, 젠더라는 불안 : 트랜스/페미니즘을 모색하는 메모, 세 번째」, 『여/성이론』, 23, 48-75, 도서출판여이언.

한 저항을 사유하는 것은 이에 기인한다.

“주체가 법(권력)을 향해 돌아서거나 달려나간다는 것은 주체가 법에 대한 정념적인 기대 속에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랑은 호명을 넘어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랑은 오히려 정념적인 원을 형성 하는데 이 원 안에서 주체는 그 자신의 상태에 의해 옹매이게 된다.”(버틀러, 2019:190) 버틀러는 선불리 구조의 바깥에 대해 상상하지 않는다. 호명이 실패했다는 사실이 주체를 권력의 너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 버틀러는 무엇보다 권력의 안에서 그 가능성을 모색해야만 했고, 그에 따라 권력 안에서 권력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를 내뱉는 ‘주체의 내면(정신)’이 저항의 장소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양가감정의 토대 위에 권력에 대한 저항을 사유하려는 버틀러의 지적 작업이 권력의 한계만큼이나 주체의 역능을 고취하는 게 아닐까. 본고는 권력과 주체의 공모성을 통해 권력에 대한 저항을 모색하고자 하는 지적 탁월함을 인정하는 한편, 그것이 권력과의 공모적 관계(권력의 한계)를 능히 알아차릴 수 있는 주체를 전제하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²⁾ 권력에 대한 예측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예측에 대한 열망과 거부라는 감정은 사회적 삶을 바라는 주체라면 무릇 지닐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전해은(2011)이 지적하듯, 버틀러에게 있어 저항(전복)은 단언이 아니라 ‘가능성’으로서 제기되는 것이다(171). 그러나 『위태로운 삶』, 『젠더 허물기』를 필두로 한 예측적 주체화에 대한 윤리적 확장을 도모한 이후의 작업을 고려할 때, 양가감정으로부터 저항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외려 주체의 책임을 부각시키는 일이 될 지도 모른다. 이는 버틀러 자신이 그토록 벗어나고자 했던 ‘주체’라는 권위³⁾에 의탁하고 마는 일이 될 수도 있다.

2) 『권력의 정신적 삶』(2019:22-3)에서 버틀러는 주체가 자신의 애착을 ‘바라볼(see)’ 충분한 여유가 없을 뿐이지 그것이 주체에게 ‘분별력(discernment, knowingness)’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명시한다. 다시 말해, 주체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인식을 유보하는 것이지 언제든 권력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주체’의 문제와 씨름했던 버틀러의 이론적 작업은 다음의 논문을 통해 참고할 수 있다. -조주영(2014), 「“주체” 없이 행위성을 설명하기 : 주디스 버틀러의 수행

우리는 ‘퀴어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혐오 없는 사회를 꿈꾸기보다 ‘정상적(이성애적)’ 사랑을 할 수 있는 이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는 서글픈 광경을 목도할 수 있다. 버틀러에 따를 때, 권력과 규범에 대한 이들의 애착은 권력의 바깥에서 살 수 없다는 예측에의 불가피함에서 기인할 것이다. 그러나 권력에 대한 예측이 불가피하다는 바로 그 인식은 당장에 이들이 마주하는 극심한 정서적, 신체적 어려움을 묵묵히 감내하게 하기에 충분한 것인가. 본고는 버틀러의 지적 작업을 검토함으로써 권력에 대한 예측에의 ‘불가피함’에 앞서 주체에게 권력이 얼마나 피할 수 없는 ‘얼굴(들)’로 상연(enact)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II. ‘좋은 삶’이라는 환상의 유효함

과연 존재하는 모든 삶은 ‘살 만한(livable)’ 것으로 여겨지는가. 응당 ‘살 만한 삶’이란 무엇인가. 모든 삶은 애도될 수 있는가. 버틀러(2013; 2018; 2020; Butler, 2020)는 푸코(2020)의 ‘생명 정치(biopolitics)’를 해석하며 주체를 ‘살게 하는’ 생명 권력(biopower)이 ‘살 만한’ 혹은 ‘살 만하지 않은’ 삶이라는 구체적인 윤리의 문제로 이행된다고 주장한다. 누군가의 손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그에 수반되는 조치가 제도적 수준에서 정서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차등적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삶’은 그 자체로 ‘살 만한(livability)’을 담보하지 않는다. 어떠한 삶은 위기의 순간마다 신속한 대응과 조치가 뒤따르지만, 다른 어떠한 삶은 그 취약함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음험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따져 묻는다. 버틀러는 ‘살 만하지 않은’ 삶이 진정 취약한 이유는 규범을 어긴 존재를 향한 모욕과 멸시 때문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들을 무엇

보다 취약하게 만드는 것은 “살 수 없는(unlivable) 기호 아래에서 살아야만”(Butler, 1993:3) 한다는 데 있다.

내가 영위하려는 삶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사실상 이미 폐기되었다면, 나는 어떻게 올바른 삶을 영위하려고 하겠는가? 내가 영위하는 삶이 살 만한 것이 아닐 때 잔인하고 혹독한 역설이 따라오게 되는, 왜냐하면 그 질문, ‘나는 어떻게 올바른 삶을 영위하는가’에는 영위될 삶들이 존재한다는, 즉 살 만한 것으로 인정된 삶이 존재하고 내 삶도 그중에 하나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략)… 우리가 부득불 “그릇된 삶”—살 만하지 않은 삶(인용자 주석)—이라 부르게 될 이 세계가 살아 있는 존재로서의 나의 가치를 반사하는 데 실패한다면, 나는 그런 형태의 삭제와 불평등을 생산하는 범주들과 구조들에 대해 비판적이게 되어야만 한다.⁴⁾

(버틀러 지음, 김응산·양효실 옮김, 2020:283)

버틀러의 문제 의식은 다음으로 이어진다. 그 자신의 삶이 ‘살 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체는 어째서 사회적 삶을 포기하지 않는가. 자신을 ‘살 만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을 시시각각으로 앗아가는 현실 속에서 주체는 더 이상 자기 삶을 긍정할 수 없다. 자신의 삶이 ‘살 만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때, 자기 긍정이 소진됐을 때, 과연 주체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버틀러(2020)는 자기 긍정의 한계에 봉착한 주체가 또다시 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권력과 비판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버틀러의 논지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삶 자체를 차별적으로 가치화하는 그 구조들을 비판하지 않고서는 나는 나 자신의 삶을 긍정할 수가 없다.”(283-4) 요컨대 주체의 사회적 삶은 자기 삶의 가치를 삭제하는 범주들과 비판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존속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도식 아래 ‘살 만하지 않는’ 이들은 모

4) 원문과 대조하여 일부 표현을 수정하였다.

두 권력과 비판적 관계를 맺고 있거나 [지금은 아니더라도] 올바른 삶을 향한 윤리적 헌신을 위해서 언제든지 비판적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존재로 부상하게 된다—이것이 버틀러가 생각하는 저항의 형태이다. 그러나 어떠한 삶의 구조적 지위를 통해 현존하는 권력의 한계(모순)를 드러내 보일 수 있다는 것과 실제 그 삶이 권력에 대한 저항에의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지의 문제는 구분되어야 한다. 자기 긍정의 한계에서 권력과 비판적 관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체는 은연중 비판적 존재로서 그 역능을 신임받는다. 이에 본고는 다음의 의문을 남기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삶 역시 올바른 삶이며 자신도 남들처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는 그들의 삶에서 만큼이나, 자신을 둘러싼 구조에 대해 “비판적이게 되어야만 한다”는 윤리적 명령으로 인해 위태로운 건 아닌가.

본고는 앞선 문제의식을 해소하기 위해 ‘좋은 삶’에 대한 벌랜트의 논의에 주목한다. ‘좋은 삶(the good life)’이란, 가령,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기르며, 적당히 소비도 하고, 이따금 여유를 즐기는 이른바 ‘평범한’ 삶의 환상이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좋은 삶’이라는 환상이 무엇보다도 지금의 현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좋은 삶’에 대한 주체의 애착심은 사회적 인정 및 승인의 비호 아래 구성된다. 주체는 저 멀리의 유토피아가 아닌 자신이 밭을 딛고 있는 바로 이 사회 안에서 ‘좋은 삶’에 이르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러나 벌랜트가 주장하다시피 ‘좋은 삶’이라는 환상으로부터 주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고작 ‘좋은 삶’에 근접했다는 느낌일 뿐이다. ‘좋은 삶’을 재생산하기 위한 전통적인 토대는 이미 급속도로 마모되고 있고 오늘날 주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곤 “답보 상태(impasse)에 머무르는 것”(15) 그뿐이다. 벌랜트에 따르면, 많은 이들의 기대가 무색하게 ‘좋은 삶’에 대한 약속은 정치, 경제, 문화적 영역 곳곳에서 철회되었고, ‘좋은 삶’이라는 환상은 이미 “역사적 현재의 살아 있는 위태성을 은폐하는 가면”(355)으로서 그 효용 가치를 상실했다. ‘좋은 삶’을 지향한다고 한들 주체의 궁극적인 소

망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결코 주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주지 않음에도, 환상을 파괴한다는 대가가 실로 큰 나머지 주체는 “잔인한 낙관(cruel optimism)”(15)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벨렌트는 ‘좋은 삶’은 이미 위기에 봉착했지만, “이 위기는 그 규모만으로도 ‘삶을 소유’하는 것이 여태 가졌던 의미를 너무나 위협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성취”(13)로 보인다고 덧붙인다.

비판자의 세계에선 ‘좋은 삶’은 마모된 환상이자 교묘한 유혹의 대상일 것이다. 벨렌트가 주체에게 이러한 부조리한 환상에 대하여 “정보를 흡수하는 의식과 과잉경계심”(15)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직장과 집을 오가며 일상을 영위하는 이른바 ‘보통의 시민’에게 ‘좋은 삶’은 마모된 환상에 불과할까. ‘좋은 삶’에 대한 탁월한 제언에도 불구하고 벨렌트가 ‘좋은 삶’의 역량에 대해 서둘러 종언을 고한 것 같다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오늘날 보통의 시민들이 ‘좋은 삶’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좋은 삶’ 외의 대안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다. ‘좋은 삶’은 여전히 좋은 것이다. 그들이 머무는 곳은 “답보 상태가 내포하는 대기 경로”(15)라기보다 언젠가 ‘좋은 삶’이 도래할 잠재적 공간이다. 비판자의 시각으로만 보면 ‘좋은 삶’에 대한 그들의 애착은 기실 ‘잔인한 낙관’이다. 그러나 보통의 삶에서 ‘좋은 삶’이라는 환상은 형언할 순 없지만 어쩐지 불안하고 부당한 느낌들을 극복하게 하는 심리적인 진실로서 여전히 유효하다. 윤조원(2023)은 “답보상태의 일상은 개인이 그때그때 위기를 관리하는 임기응변의 기술을 발휘해야 하는 장소”라고 주장하며, “오늘날 친밀성의 시나리오가 전통적인 연애와 결혼이라는 ‘좋은 삶’의 형식을 폐기하지는 않으면서 ‘썸타기’나 ‘어장관리’, ‘쿨한’ 일회성 만남 등으로 펼쳐지는 것 또한 위험부담을 염두에 두는 위기 관리의 일환이라고”(140) 덧붙인다. 그러나 새로운 친밀성의 시나리오 역시 ‘좋은 삶’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경로에 불과하다. 어장관리나 일회성 만남이 결혼정보 시장에서 숨겨야 하는 일탈적 행위로 여겨지거나 그러한 새로운 연애 형식이 끝내 진정성

의 부재로 폄하된다는 사실은 오늘날 ‘좋은 삶’이 여전히 지킬 만한, 지키고 싶은 규범적 환상임을 방증한다. 주체가 원하는 경계심이란 규범의 모순점을 간파하기보다 ‘좋은 삶’으로 향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발휘되어야 하는 것이다.

주체는 ‘좋은 삶’에 대한 애착심을 쉽게 버릴 수 없다. 이는 ‘좋은 삶’에 대한 약속이 주체의 ‘친밀한[혹은 사랑의] 관계’를 담보한 채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친밀성과 가족주의라는 사랑의 플롯으로 동봉된 정상적 젠더 규범 아래”(Berlant & Warner, 1998:554) ‘좋은 삶’이라는 환상은 만질 수 있는 ‘얼굴들’로 상연된다. 즉 주체에게 있어 ‘좋은 삶’은 동화 속의 환상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다. ‘좋은 삶’이란 ‘너’와 ‘나’가 체감할 수 있는 미래적 현실이다. 가족, 친구, 그리고 주변 동료들의 공통된 열망 아래 ‘좋은 삶’은 이탈할 수도, 의심할 수도 없는 것이 된다. ‘좋은 삶’에 정동된 주체⁵⁾에게 그것은 여러 생애 도식 중 선택할 수 있는 그저 하나의 옵션에 그치지 않는다. 김재인(2017)의 정확한 표현을 빌리자면, ‘좋은 삶’은 하나의 “심리적 존재물이 아니”라 “심리적 존재물을 가능케 하는 존재론적 조건”(139)이기 때문이다. ‘좋은 삶’이 하나의 존재론적 조건으로 작용하는 한 그로부터 이탈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좋은 삶’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할 때, 주체는 자신을 구성하는 존재론적 토대, 친밀한 ‘타자’와의 오랜 관계를 허물기를 감행해야 한다. 다가올 서로의 미래를 뒤로 한 채 권력의 한계를 모색하고 예측에 의 불가피함을 인식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5) ‘정동되다’는 표현은 ‘정동에 관한다’(to be concerned with affect; to be affected)는 것을 의미한다.

III. ‘좋은 삶’에 대한 정동적 애착과 저항의 어려움

사회적 삶을 누리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억지하고 부인해야 하는 주체의 애태움(vexation)은 버틀러에게 ‘죄책감(양심)’의 문제로 표현된다(2019:20-25). 잘못에 따른 정신적 대가는 응당 그러하다고 할지라도, 앞서 무언가를 잘못으로 규정하는 일은 지극히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이다. 죄책감은 오로지 ‘지금 여기’라는 구체적 맥락에서 가능한 대가, 다시 말해 자신이 받을 딛고 있는 사회의 규범을 어긴 정신적 대가이다. 그 고통스러운 자기 위해에 권력과 주체의 내밀한 관계가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버틀러는 죄책감이 권력에 대한 의존의 한 양태이며 이러한 “의존 없이” 주체 그 자신의 “형성은 없다”(25)고 단언한다. 주목할 것은 버틀러가 주체의 존재 양식의 단초를 어린 시절 부모에 대한 애착에서 발견한다는 것이다. 버틀러는 아동학대의 현실에 대한 논쟁들이 일면에서 아동 착취의 성격을 잘못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모를 향한 애착의 불가피함을 역설한다(21-2). 아이는 부모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애착은 생존에 필수불가결하다. 버틀러의 표현을 가져오자면, “삶의 필수조건으로 사랑이 연루된 곳에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22)한 일이다.

버틀러에 따르면, 권력에 대한 주체의 애착은 단지 권력이 두렵거나 무섭기 때문만은 아니다. 주체가 권력에 대해 애착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러한 애착이 자신의 존재론적인 조건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설령 성인이 되어 부모를 향한 자신의 애착이 오인(misrecognition)으로부터 비롯한 것임을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주체는 [존재론적으로] 분열되기—권력으로부터 이탈하기—를 속삭이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저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분열은 실현되기 어려운 만큼이나 주체의 사회적 삶을 위해 실현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주체는 권력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자기 분열에의 욕망을 주입하는 [자기 자신의] “욕망의 장애물”(24)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권력으로부터 이탈

하고자 하는 주체의 욕망은 사회적 삶의 존속을 담보로 삼은 채 번번이 지연된다. 주체는 어린 시절부터 체화해 온 그 유서 깊은 의존성을, 자기 앞에 현전하는 역사를 극복할 수 없다. 어떠한 사회적 매개도 없이 자신을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주체는 무언가를 ‘박탈(being dispossessed)’ 당했다는 기분이 들지만(버틀러, 2019; 2018; 2020), 이는 결코 떨쳐버릴 수 없는 것, 외려 반복적으로 “되살리고 치환”(Ibid, 2019:23)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버틀러가 말하는 ‘저항’이 권력으로부터 완전한 해방 따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권력의 바깥으로 향하는 노정에서 오는 예측에의 불가피함을 인식하는 일, 살기 위해 권력에 예측될 수밖에 없다는 ‘자기 인식(감각)’이야말로 버틀러가 언명하는 저항의 형태이다.

그렇다면 살기 위해 권력에의 예측이 불가피하다는 자기 인식은 언제, 어떻게 형성되는가? 다시 말해, 권력과 공모적 관계로부터 저항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주체는 그러한 자기 인식의 계기(양가감정)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권력의 정신적 삶』에서 양가감정은 성인 주체로의 성장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출현한다(버틀러, 2019:). 마치 주체에게는 누구나 양가감정이 잠재해 있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권력의 불의와 모순을 인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처럼 말이다. 도대체 주체는 왜 성인이 되어서야 ‘참을 수 없는’, ‘차마 똑바로 바라볼 수도 없는’, ‘자기 내면에서 이리저리 충돌하는’ 감정을 느끼게 된 것일까? 주체는 그 자신의 근원적 양태의 의존성으로부터 결속과 집단적 저항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버틀러, 2018:85)을 왜 그제서야 깨달은 것일까? 예측에 대한 반작용이 성인 주체가 되기 이전에도 존재했고, 다만 주체가 그것을 언어화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해도 여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체는 권력과 불화를 왜 이제껏 언어화하지 못했는가. 저항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이론적 열망으로부터 주체는 부지불식간에 그 저항에의 역능을 신임받는다. 그 과정에서 권력에 대해 능히 저항할 수 있음에도 저항하

지 않는 주체의 징후가 포착된다. 저항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선택한 주체의 내면(정신)이 외려 사태의 책임을 귀속시키기 위한 익숙한 방법으로써 ‘주체’의 권위를 재확인하는 데 전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주체의 심리적 수준에서 저항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만큼이나 같은 수준에서 주체에게 권력이 얼마나 거부 불가능한 외연으로 상연되는지를 말할 필요가 있다.

“너” 없이 존재할 수 없는 “나”는 또한, “나”나 “너”에서 비롯되지 않은 일단의 인정 규범에 근본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때 이르게 또는 뒤늦게 “나”로 지칭되는 존재는 애당초 속박된 존재이다. 그 속박이 폭력이든 방치 상태든 다른 어떤 기제에 의한 것이든 말이다. 물론 그 지점에서는 아무것도 속박되어 있지 않아서 존재하기being와 되기becoming의 조건을 아예 상실하는 것보다 빈곤이나 학대에 속박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인다. …(중략)… 갓난아기가 애착관계 형성에 실패하면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지만, 어떤 조건하에서는 애착을 형성하더라도 다른 측면에서 비생존의 위협을 당한다. 그래서 일차적 취약성에 대한 일차적 지원이 영아와 어린이에게는 윤리적 문제이다. 그러나 이 상황은 더 광범위한 윤리적 결과를 초래한다. 성인들의 세계뿐 아니라 정치의 영역과 그것의 암묵적 윤리의 차원에 해당하는 결과이다.

(버틀러 지음, 윤조원 옮김 2018:80-81)

버틀러(2019)는 부모에 대한 아이의 ‘의존’으로부터 권력에의 ‘종속(예속)’을 이론적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의존** 모델에서 자기 자신(자신의 욕망)에 등을 돌린 주체는 주체가 존속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이다. 따라서 자기 자신으로 존속하기 위해 자기 자신이 **종속**되는 조건을 욕망해야 할 필요가 있다.”(24, 강조는 인용자) 어떻게 정신분석학적 수준에서의 ‘의존(dependency)’은 정치경제적 ‘종속(subordination)’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것인가. 이는 버틀러의 지적 작업을 조망할 때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분명 정서적 “유대관계”에서 “정치적 공동

체”(버틀러, 2018:54)의 형성 과정을 모색하고자 하는 버틀러의 윤리적 기획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아이의 애착과 권력에 대한 주체의 애착은 그 층위가 다르다. ‘엄마’의 부재에 따른 공포와 불안은 자신이 몸 담고 있는 사회로부터 배제될 것이라는 주체의 불안과 유비될 수 있을지언정 아이의 ‘의존’이 주체의 ‘종속’의 근거가 된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다. 강경덕(2016:177-8)은 이러한 논리적 전개에 대해 어린 아이는 ‘양심의 주체’라기보다 비존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모에게 애착할 수밖에 없는 ‘정신분석학적 주체’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즉 버틀러가 비존재와 비주체에 대해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버틀러가 은밀히 ‘의존’과 ‘종속’의 간극을 좁히는 동안 유아기의 의존 상태에서 성인 주체의 예측에 이르기까지 “인정과 변영을 위해서 주체가 중층 결정된 일군의 약속과 잠재성을 협상하는 장면”(벌랜트, 2024:335)들이 누락된다.

버틀러는 규범성을 경유해 정신분석학적인 것을 윤리적인 것으로 번역하면서 이야기로부터 무의식을 빼버리고 주체를 윤리적 의도론자로 만들어 버린다. 즉 더 나은 좋은 삶을 얻기 위해서, 토대가 되는 정동적 애착심을 단축해 버리는 인지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

(벌랜트 지음, 박미선·윤조원 옮김 2024:331)

그 자신의 오랜 정동적 애착심을 회수할만큼이나 주체에게 권력의 모순과 주체성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은 그토록 절박한 일인가. 벌랜트(2014)는 버틀러가 예측화 과정 안에 있는 양가감정을 지나치게 신뢰하다 못해 종국에 주체를 규범에 대한 애착심을 재생산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는 그야말로 ‘주권적(sovrenign)’인 인물로 상정한다고 비판한다(334). 일상 수준에서 주체는 너나 할 것 없이 ‘좋은 삶’에 대한 애착심을 투여한다.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퀴어’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좋은 삶’에 대한 주체의 기대와 믿음 아래 ‘좋은 삶’은 더 이상 헛된 망상

으로 치부되지 않는다. 그것은 주체에게 있어 하나의 ‘유사-현실’이다. 권력에의 저항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주체가 기꺼이 “정동적 애착심을 단축해 버리는 인지적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 권력에의 예측이 불가피한 것임을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부정의한 체제에 대한 애착을 탈학습하는 일”(335)은 주체에게 있어 어려운 문제로 작용한다. 혐오와 모욕, 자기 위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좋은 삶’에 대한 누적된 애착은 도리어 체제의 부정의마저 주체가 감당하도록 만든다. 최원(2016)의 의문을 가져와보자. “개인이 현재 죽음의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데올로기적 호명에 대한 자신의 화답과 이에 따른 예측이 자신이 그토록 바라는 삶과 안전을 가져다주리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또는, 똑같은 말이지만, 삶과 안전에 대한 대타자의 ‘약속’을 그 개인은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265) 이는 ‘좋은 삶’이 가닿을 수도 없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며, 예측할 수도 없이 머나먼 미래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정동적 애착심이 형성하는 ‘좋은 삶’이라는 환상의 지정학적 공간은 주체와 멀리 있지 않다. 최원의 의문에 대한 범박한 답을 제공하자면, ‘좋은 삶’은 ‘당장에’ ‘가까이에 있는’ 주체의 **심리적 진실(현실)**이다. ‘좋은 삶’은 주체에게 시공간적으로 근접한 현실이며 결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좋은 삶’에 정동된 주체는 “독자적인 교란의 법칙(a law of disturbance unto itself)”(Berlant, 2012:26) 아래 자신의 의지를 과신한다. ‘좋은 삶’을 좌절시키는 것도 다시금 소생시킬 수 있는 것도 모두 주체 자신에 달려 있다는 듯 말이다. 외려 주체는 규범적 이상에 부합하지 못한 자신을 책망하고 부인함으로써 ‘좋은 삶’에 대한 권력의 약속을 연장한다.

잔인한 낙관에서 주체나 공동체는 소중한 애착심을 금고에 보관해야 할 보물로 만들고, 이것이 주권성을 분산시킴으로써, 곧 [그것이 주는] 관계적·일반적·일반적·누적적 느낌의 에너지를 통해서 주권을 견딜 수 있도록 해준다. 순환[유통] 속에서 우리는 일상적인 방식으로, 종종 기분 좋게, 행복해진다. 세계 속 존재로서 느끼는 무

계가 공간, 시간, 소음, 그리고 다른 존재들에게 분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권성이 우리 손에 다시 주어지면 그전까지 분산되었던 주권성의 무게가 분명해지고, **주체는 주권성의 막대함을 도착적으로 모방**하는 가운데서 정체되고 만다. 잔인한 낙관의 관계에서 우리의 활동은, 일종의 수동성에 이르기 위한 통로라는 것, 과도한 살아 있음에 대한 반응으로, 타성으로 살아가는 지각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형식을 찾으려는 욕망의 증거라는 것이 밝혀진다.

(벌랜트 지음, 박미선·윤조원 옮김 2024:86, 강조는 인용자)

주체의 수행이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것이다. 버틀러(2008)는 이를 수행상의 ‘미끄러짐’으로 포착하는데, 주체가 결코 규범을 완전히 모방할 수 없고, 이로부터 권력의 구성적 한계가 폭로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벌랜트(2024)는 주체의 수행이 ‘좋은 삶’에 대한 환상을 지속시키는 “단독적인 주권성의 감각(singular sovereignty)”⁽⁸⁶⁾이라고 역설하였다. 주목할 것은 그러한 주권성이 일종의 감각이자 느낌이라는 것이다. 벌랜트에 따르면, 이루어지지 않을 환상 아래 주체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좋은 삶’에 다다를 수 있다는 느낌뿐이다. 그러나 실제 ‘좋은 삶’을 실현시킬 수 있을지의 여부는 크게 중요치 않다. ‘좋은 삶’에 이를 수 있다는 느낌은 적어도 주체의 삶 안에서 실재한다. 아무런 근거 없는, 토대 없는 믿음 따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윌리엄스(2021)는 주체의 감각과 느낌이 체험과 체계의 인식론적 간극을 줄임으로써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당면한 무언가(a present kind)’로 인식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좋은 삶’은 주체에게 있어 권력의 무엇도 환상의 무엇도 아니다. 그것은 주체의 자명한 심리적 현실로서 더욱이 지향해야 할 것, 지향하고 싶은 것이 된다. ‘좋은 삶’이라는 환상이 자신을 유혹하고 그 꾀에 속절 없이 속는다는 건 가당찮은 것이다. 외려 ‘좋은 삶’에 다다르기 위해 주체는 더욱더 열렬히 정동을 쏟아 부어야 한다. ‘좋은 삶’에 대한 애착이 권력의 인식론적 억압 혹은 폭력에서 기인한다는 언설은 이들의 믿음 아래 쉽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체가 ‘좋은 삶’에 대한 애착을 거두기 힘든 이유는 그것이 일상 속 타자의 ‘얼굴’로 상연되기 때문이다. “권력은 주체에 작용(act)을 가할 뿐만 아니라 타동적인 의미에서 주체를 존재로 실연(實演)한다(enact). 권력은 주체 존재의 조건으로 주체에 선행한다. 그러나 권력이 주체에 의해 행사될 때, 권력은 [자신이 지녔던] 우선성의 외양을 상실한다. 즉 권력이 주체의 효과이자 주체가 행하는 것이 권력이라는 역전된 관점을 발생시키는 상황이 나타난다. 어떤 조건이든 현재화되지 않고서는 무엇인가를 가능하게 하거나 제정할 수 없다.”(버틀러, 2019:30) 권력이 “우선성의 외양을 상실”한 자리엔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주체의 얼굴이 들어선다. 그 과정에서 권력과 주체의 공모적 관계는 주체들 간의 심리적 문제로 치환된다. 이를테면 불합리한 성적 대우와 모욕으로부터 주체가 감각하는 것은 차별적인 성적 구조도 공고한 젠더 규범도 아니다. 주체가 제일 먼저 마주하는 것은 다름 아닌 무시무시한 타자의 ‘얼굴’이다. 권력과 주체의 공모적 관계는 언제나 타자의 ‘얼굴’에 후행한다. 가령, 내가 게이라는 사실은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되거나 주변인의 모자란 이해심을 겨냥할 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체가 “그 자신의 행위—이성애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인용자)—와 그 행위의 결과로서 고통 겪기 사이에서 인과론적인 관계를 공언”(버틀러, 2015:23)⁶⁾하는 일은 비밀비재하다. 허락되지 않는 사랑을 둘러싼 문제는 오직 당사자의 설득과 그 주변인들의 인정으로 해소될 수 있는/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권력은 언제나 익숙하고도 친밀한 얼굴 뒤에 있다. 주체를 둘러싼 친밀한 ‘얼굴’은 권력의 존속 조건을 (재)생산하는 동시에 은폐한다. 그러나 우리는 권력의 실체를 결코 직시할 수 없다. 우리는 타자의 얼굴을 매개한 채 권력을 가늠할 수 있을 뿐이다. ‘좋은 삶’이 타자의 ‘얼굴’로 상연되는 한 그것은 더 이상 인식론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좋은 삶’이란 결코 나만의 것이 아

6) 원문과 대조하여 일부 표현을 수정하였다.

니다. 그것은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과 공유하는 정동적 열망이다. ‘좋은 삶’은 타자의 얼굴로 변모한 채 주체의 상징계에 단단히 구축된다. 주체가 과연 상징계(‘좋은 삶’에 대한 믿음)의 붕괴라는 거대한 사건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앞서 주체는 ‘좋은 삶’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법도 결코 온전히 알지 못한다. ‘좋은 삶’으로부터의 이탈이 친밀한 이들과의 절연을 볼모 삼은 채 상연되는 한 ‘좋은 삶’은 권력 작용으로도 신자유주의적 환상으로도 인식되지 않는다. 그것은 **당장의** 친밀한 이들을 향한 ‘배신(배반)’일 뿐이다. 벨란트가 주체가 맺는 친밀한 관계가 그들의 몸과 마음에서 헤게모니적 환상을 번성하게 한다고 주장했던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한다(Berlant, 1998).

IV. ‘나쁜 주체’와 자기발명의 구속

버틀러는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1991)에서 드러난 ‘양심’의 문제를 비판하며 저항 가능성을 사유한다. 호명 이론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이전에 알튀세르는 ‘생산 조건들의 재생산에 대하여’라는 절을 할애하여 어떻게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는지 묻는다.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물질적 수단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나, 그것은 단지 임금노동자의 물질적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만 투여되어선 안 된다. 그들의 급료는 ‘노동자로서 자격’을 형성하는데, 즉 ‘양육’과 ‘교육’을 지속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⁷⁾ 노동자로서 적합한 의식을 형성하는 문제가 대두하는 것이다. “모든 생산의 대리자들과 착취와 억압의 대리자들은 그들의 임무를 **‘양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혹은 저런 방식으로 이 이데올로기에

7) 주목할 것은 그러한 의식 형성의 책무가 “더 이상 ‘현장에서’가 아니라, 점점 생산의 바깥”(알튀세르, 1991:79)으로 이양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알튀세르는 의식 형성을 고무하는 기관(심급)으로 ‘학교’의 역할을 강조했다.

찾어 있어야 한다.”(80, 강조는 인용자) 주목할 것은 알튀세르가 ‘양심’을 일종의 ‘유순함’, ‘적합함’과 동의어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자신의 양심 아래 노동자들은 묵묵히 제 노동력을 재생산한다. 버틀러(2019:174-5)는 ‘수행’(to perform)의 원 표현인 불어 ‘s’acquitter’에 ‘이행한다’는 뜻 외에 ‘[피고의] 무죄를 선고한다’는 의미가 있음에 주목한다. 노동의 재생산은 도덕적 영역과 은밀히 중첩되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것,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지식을 익히는 것, 노동자로서 적합한 의식을 갖추는 것은 [주체의] ‘죄를 사하는 행위’로 귀결된다. 버틀러는 알튀세르에게 있어 주체가 된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고 추정된 후 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 받는 것”(Butler, 1997/2019:175)과 같다고 주장한다. 알튀세르가 호명 이론을 전개하기 위한 선택한 비유가 다름 아닌 몽둥이를 친 경찰(form of reprimand)이었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한다. 알튀세르에게 권력에 예속된다는 것은 혐의 사실에 대응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려는 증명 절차의 일환인 것이다. 권력에의 예속이 그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증거가 될 때 주체의 양심(죄책감)은 무엇을 말하는가. 알튀세르는 권력이 작용하는데 양심의 필요를 언급하지만, 그가 생각하는 양심은 버틀러가 주장하듯 갈등적이거나 양가적인 게 아니다. 그에게 있어 양심은 무죄를 선고받는다든 목적에 정향된 것,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드는 효과적인 내면의 장치이다. 이는 지극히 합당한 듯 보이는데, 과연 어느 누가 혐의를 받은 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말인가. 알튀세르가 ‘양심적이지 않은’, ‘양심을 배반하는’ 이른바 ‘나쁜 주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 부합한다—기실 알튀세르는 그런 존재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예속되기를 거부하는, 거부까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줄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일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양심적인’이라는 표현이 좌우지간에 권력의 부름에 응답한 주체를 지칭하는 한편, ‘나쁜’ 주체는 인식론적 차원에서부터 ‘폐제 foreclosure)’된다.

그러나 과연 주체는 권력의 부름에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응답하는가.

주체는 자신을 용의자로 상정하는 권력의 목소리에 그저 해명하는 게 전부인가. 버틀러는 알튀세르에 의해 폄하된 ‘나쁜 주체’의 가치를 복원할 필요성을 제기한다.⁸⁾ 주체의 내면은 알튀세르가 기대하듯 그렇게 단일한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버틀러가 생각하는 저항은 ‘역사애의 초월’이나 ‘권력의 바깥에의 존재’ 따위가 결코 아니다. 버틀러는 “주체의 자기 동일성이 기대되고, 주체의 순응적 행위를 명령하는 곳에서, 명령의 정당성에 미묘하게(subtly) 의문을 제기하는 순응의 패러디적 내재화(parodic inhabiting)의 형태로 법에 대한 거부가 존재할 수 있다”(Butler, 1993:122)고 말한다. 권력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 버틀러가 생각하는 저항이란 “기대와 명령을 전달하는 권위(권력)”(*Ibid*, 122) 안에서 그 의도를 조금씩 비껴가는 일(rearticulation)이다. 버틀러가 이 사회의 ‘나쁜 주체’로 자신을 발명하기를 역설하는 것도 그러한 까닭이다. 요컨대 사회적 존재로 말하고 사랑하기 위해 ‘나쁜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자기 인식에 버틀러가 의도한 저항의 가능성이 있다.

자신의 도착된(perverted) 애정을 절제하지 못한 채 주변인들의 행복을 위협하고 가족 재생산에 기여하지 않는 존재의 외연은 ‘나쁜 주체’가 놓인 인식론적 지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그러한 ‘나쁜’ 외연이 그들의 사회적 실존을 증명하는 기표라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 동성애자를 향한 인식론적 폭력이 그 불합리한 ‘폭력’에 앞서 ‘인식’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삶을 살기 위해 우선 특정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은 버틀러의 다음 문장으로 요약된다. “관계의 한 양태로서 젠더나 섹슈얼리티는 반드시 소유함(possession)은 아니며, 오히려 박탈(being possessed)의 한 양태, 타인을 위한 존재 방식, 혹은

8) 알튀세르에 대한 버틀러(Butler, 1993)의 불만은 「젠더는 불타오르고 있다: 전유와 전복에 대한 질문들」에서 여실히 드러나는데, 버틀러는 권력의 부름을 수행한다는 것은 그 부름 행위에 담긴 [규율] 의도를 초과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12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 -Butler, J.(1993), *Bodies That Matters*, New York: Routledge.

타인 덕분에 가능한 존재 방식이다.”(버틀러, 2018:52) 자신을 둘러싼 다기한 ‘박탈’ 속에서 비이성애적 주체는 ‘나쁜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타자와의 불가분한 삶, 사회적 삶의 존재 양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안에서 주체가 느끼는 죄책감은 잘못된 행위에 따른 정신적 대가에서 권력과의 공모성을 상연하는 정신적 징표로 승화된다. 자신의 사회적 삶이 현존하는 권력에 연루되는 방식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체는 ‘나쁜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로부터 자기 발명을 위한 인식론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쁜 주체’로서 자기를 인식하는 일은 일종의 주체화의 성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권력이 친밀한 ‘얼굴’로 상연되는 한 그러한 인식론적 계기라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얼굴(들)’ 없이 인식론적 계기를 형성할 수 있는 ‘안전한’, ‘무균의’ 공간은 없다. 우리는 버틀러를 통해 주체가 규범적 삶의 원형으로부터 조금씩(subtly)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지만, 현실 수준에서 그 미끄러짐이 친밀한 이들의 ‘얼굴’ 사이를 비껴 가는 일임을 잊어선 안 된다. 그것이 바로 본고가 권력과 규범에 대한 주체의 양가감정으로부터 저항을 모색하는 버틀러의 이론적 모델을 비판하는 이유이다. 권력에 대한 주체의 애착은 역동적인만큼 고착적이다. 특히 권력이 자신의 외양을 친밀한 얼굴에게 위임하는 한 주체의 자기 발명은 지속적으로 유보된다. 친밀한 ‘얼굴’과의 관계 안에서 권력과 저항에 대한 주체의 상상은 사랑과 배반의 문제로 전유된다. 권력에 대한 예측의 오랜 역사만큼이나 그것이 자신과 가장 친밀한 이들과 쌓아온/쌓아낼 관계(사랑의 형태)로 나타날 때, 주체는 더욱이 ‘좋은 삶’을 벗어나지 못한다. ‘좋은 삶’의 균열을 봉합할 수 있는, 친밀한 이들의 생의 열망을 보존할 수 있는 존재로서 ‘좋은 삶’에 대한 환상을 깨트린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좋은 삶’에 대한 의심과 거부감은 친밀한 이들과의 정동적 사슬 속에서 자기 책망으로 변모하게 된다. 아메드(Ahmed, 2010:56)는 특정한 이의 환상이 다른 이의 환상에 조건부적으로 달려있다고 주장하는데, 자신

의 환상으로부터 이탈하는 건 연결된 또 다른 누군가의 환상에 희망을 놓는 일이다. 이처럼 주체의 정동적 애착심은 타자의 ‘좋은 삶’에 대한 환상을 보살피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재)생산된다. 누군가의 환상을 돌보는 존재로서 환상에 저항한다는 것은 지극히도 어려운 일이다. ‘좋은 삶’의 대열에 함께하지 못하는 주체는 그 자신에게서조차 권력에 대한 저항이라는 심리적 명분을 제공받지 못한다. 다만 자신의 죄책감과 부채감을 어떻게 하면 잘 회피하거나 조절할 수 있을지 궁리할 뿐이다.

단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한다는, 장애를 지녔다는, 남들과는 다른 피부색을 지녔다는 사실은 ‘나쁜 주체’로 거듭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는가. 자기발명은 앞서 자기 분리를 요구한다던 에리봉(2021:66)의 말을 상기해보자. 자기발명의 내면적 요청은 주체에게 이전과는 다른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고 속삭이길 넘어 그동안의 관계에 대한 ‘창조적 파괴’를 예비하게 한다(이상길, 2024:172-9). 그러나 자신의 실존적 환경을 재구하기 위해 ‘창조적 파괴’를 감행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가능하지 않다. ‘파괴’를 인식론적인 계기로 재전유할 만한 주체의 다기한 실존적 조건이 앞서 충족되지 않는다면, ‘창조’는 결코 그 효험을 발휘하지 못한다. 자기발명은 구조적 모순을 인식할 만한 경제적·문화적·정서적 조건 위에서 가능한, 어떤 의미에서 ‘특권적 성찰(반성)’이라고 할 수 있다.⁹⁾ 앞선 맥락을 가져와 말하자면, ‘좋은 삶’을 위한 운신의 폭을 압도할 만한 인식론적 계기에는 그만큼 상응하는 인식론적 자원(존재론적 문제)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⁰⁾

9) 전승민(2023)은 ‘퀴어’에 대한 인식론적 사유가 부지불식간에 ‘퀴어’의 존재론적 특성을 누락했다고 주장한다. 인식론의 측면에서 퀴어한 삶에 대한 퀴어한 기대는 쉽게 인격의 다른 특성들을 압도했으며, 이는 ‘퀴어’를 제한적으로 재현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전승민은 ‘퀴어’를 둘러싼 인식론적 사유의 한계를 지적하며, “저간의 퀴어 비평이 퀴어로서의 성 정체성에서 출발하는 인식론이 귀납해내는 결과를 짚어왔다면, 이제는 행위 이후의 존재론에서 연유하는 사유로 나아가야 할 때”(321)라고 주장한다.

10) 직접적인 인용을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언설이 나오기까지 스피박(Spivak, G)의 이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힌다.

바로 그 예측 안에서 주체가 자신의 사회적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할 때, 권력은 단지 인식론적인 것이 아니다. 권력과 규범은 주체에게 지극히 존재론적인 문제가 된다. 이는 권력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위압적인지, 강력할 것인지와 같은 인식론적인 사유에 앞서 권력이 주체에게 감각할 수 있는 ‘얼굴’로 상연된다는 것을 말한다. 권력은 법·제도, 정치와 같은 공적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생활 영역에서도, 특히 가장 친밀한 이들의 ‘얼굴’로서 존재한다. 본고가 저항에 관한 버틀러의 이론적 작업을 비판한 것은 권력에 대한 저항 가능성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다. 과연 우리는 저항의 대상으로서 권력의 실상을 어떻게 사유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유해야 하는가. 권력과 규범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체로 하여금 자신을 향한 모욕과 혐오를 응당 감내할 만한 것으로 만드는가. 담론적 모욕의 자리가 동시에 주체의 사회적 삶을 보증해주는 자리로 작용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권력을 단지 인식적 ‘대상’으로만 사유할 때 권력은 범박하게 적대시될 뿐 주체와의 공모적 관계는 지속적으로 은폐된다.

권력은 지극히 일상적 삶 속에서 일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특히 권력은 주체가 감각하고 느낄 수 있는 친밀한 이들의 모습으로 상연된다. 권력이 존재론적 층위에서 작용하는 한 주체는 권력에 대해 쉬이 저항할 수 없다. 주체에게 있어 저항은 ‘폭로’나 ‘고발’이 아닌 ‘배신’ 혹은 ‘배반’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는 소수자 문화정치에서 저항의 문제에 대해 더욱 신중히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민호(2017)는 “사유를, 이론을 고집한다는 것은 ‘실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119)이라고 역설했다. 본고는 권력과 그 작용을 인식론적 수준 너머 존재론적 차원으로 확장하여 사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권력과 주체의 공모적 관계를 인식하기가 어려운 것은 앞서 양자의 관계가 존재론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덮어두고 권력과 규범을 말할 때 주체의 정동적 애착은 또다시 주체의 기질적(심리적) 문제로 치부되고 만다. ‘좋은 삶’은 친밀한 이들의 ‘얼굴’로 점철되어 있고, 그 속에서 권력에 대

한 저항은 빈번히 좌절된다. 그러나 그러한 좌절은 독단적 세계가 아닌 ‘너’와 ‘나’로 체현되는 공동의 세계 속의 일이다. 권력에 대한 저항은 끊임없이 모색되어야 하지만, 이는 저항을 향한 낙관과 열망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저항에의 사유를 재고하기 위한 시작점에 ‘좋은 삶’에 대한 바람을 공유하는 낯익은 ‘얼굴(들)’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강경덕(2016), 「알튀세르와 버틀러, 발리바르-주체화 양식의 논점과 일
반화」, 『철학연구』, 53, 159-206, 대한철학회.
- 기욤 르 블랑 지음, 배세진 옮김(2018), 「예속된다는 것/예속된 존재」,
『문화과학』, 96, 306-340, 문화과학사.
- 김 상 옹방쿵 지음, 류희철, 박준호 옮김(2020), 「비판과 주체화: 주체에
대한 푸코와 버틀러의 관점」, 『문화과학』, 102, 299-326, 문화과
학사.
- 김민호(2017), 「사유의 시간들」, 『문학과사회』, 30(3), 110-127, 문학과
지성사.
- 김민호(2024), 『데리다와 역사』, 에디스코.
- 김재인(2017), 「들뢰즈의 ‘아펙트’ 개념의 쟁점들 스피노자를 넘어」,
『안과밖』, 43, 132-157, 영미문학연구회.
- 디디에 에리봉, 이상길 옮김(2021), 『랭스로 되돌아가다』, 문학과지성사.
- 레이먼드 윌리엄스 지음, 성은애 옮김(2021), 『기나긴 혁명』, 문학동네.
- 로런 벌랜트 지음, 박미선·윤조원 옮김(2024), 『잔인한 낙관』, 후마니
타스.
- 루이 알튀세르 지음, 김동수 옮김(1991), 『아미앵에서의 주장』, 솔.
- 루인(2010), 「규범이라는 젠더, 젠더라는 불안 : 트랜스/페미니즘을 모
색하는 메모, 세 번째」, 『여/성이론』, 23, 48-75, 도서출판여이연.
- 미셸 푸코 지음, 이규현 옮김(2020), 『성의 역사 1: 지식의 의지』(4th
ed), 나남.
- 윤조원(2023), 「위태로움, 로렌 벌랜트, 그리고 대항 정치」, 『비평과 이
론』, 28(1), 133-156, 한국비평이론학회.
- 이상길(2024), 「정치적 기획으로서 소수자의 자기발명과 우정」, 『안과
밖』, 57, 134-181, 영미문학연구회.
- 자크 데리다 지음, 진태원 옮김(2014), 『마르크스의 유명들』, 그린비.

- 전승민(2023), 포르세를 모는 레즈비언과 윤석열을 지지하는 게이에 관하여 : 퀴어 일인칭을 위한 변론, 『자음과모음』, 57, 305-321, 자음과모음.
- 전혜은(2011), 「근대적 주체 이후의 행위성 : 주디스 버틀러의 행위성 이론」, 『영미문화페미니즘』, 19(2), 153-191, 한국영미문화페미니즘학회.
- 조주영(2014), 「“주체” 없이 행위성을 설명하기 : 주디스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25(4), 73-96,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조지훈(2021), 「수행성 이론에서 허구적 발화의 문제」, 『문화연구』, 9(1), 35-54, 한국문화연구학회.
- 주디스 버틀러 지음, 조현준 옮김(2008),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 주디스 버틀러 지음, 양효실 옮김(2013), 『윤리적 폭력 비판』, 인간사랑.
- 주디스 버틀러 지음, 윤조원 옮김(2018), 『위태로운 삶』, 필로소픽.
- 주디스 버틀러 지음, 강경덕 · 김세서리아 옮김(2019), 『권력의 정신적 삶』, 그린비.
- 주디스 버틀러 지음, 김웅산 · 양효실 옮김(2020),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 창비.
- 주디스 버틀러 지음, 한정라 옮김(2024), 『전쟁의 프레임들』, 한울엠플리스.
- 진태원(2002), 「라캉과 알튀세르 : ‘또는’ 알튀세르의 유명들 1」, 『라캉의 재탄생』(353-413), 창비.
- 최원(2016), 『라캉 또는 알튀세르』, 난장.
- Ahmed, S.(2010), *The Promise of Happiness*,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Berlant, L.(1998), “Intimacy,” *Critical Inquiry*, 24(2), 281-288.
- Berlant, L.(2012), *Desire/Love*, New York: Punctum Books.

- Berlant, L., & Warner, M.(1998), “Sex in Public,” *Critical Inquiry*, 24(2), 547-566.
- Butler, J.(1993), *Bodies That Matters*, New York: Routledge.
- Butler, J.(2020), *The Force of Nonviolence*, New York: Verso Books.
- Sedgwick, E.(2003), *Touching Feeling: Affect, Pedagogy, Performativity*,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ABSTRACT

Affective Potential or Bind of
Butler's Power Theory
—Focusing on Berlant's Discussion of 'The Good Life'

Sanghyun Park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critiques Butler's theoretical model, which posits that the possibility of resistance arises from ambivalence toward power. Butler argues that ambivalence serves as a psychic marker that shap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 and power. Subjects do not respond blindly to calls from power; rather, to sustain their social existence, they must inevitably subordinate themselves to it. Butler contends that subjects can cultivate a critical relationship with power through the structural ambivalence inherent in their subjection. However, when power is inscribed upon subjects through the representation of 'the good life,' it becomes increasingly difficult for them to maintain ambivalent feelings. 'The good life' represents a social ideal organized around heteronormative constructs such as family, marriage, and consumption. As Berlant notes, 'the good life' offers only a sense of proximity to the subject and remains an ultimately unattainable fantasy. Despite this, subjects maintain a persistent attachment to this ideal and continuously invest their personal desires in it. This study reveals how the affective relationship between power and the subject is reconceptualized as an intimate relationship among subjects. Consequently, resistance to power is often perceived as an act of betrayal that threatens the aspirations of

one's intimate others. Given this complex entanglement of power, affect, and intimacy, the study explores the nuances of power dynamics through subjects' emotional attachment to 'the good life.' Power does not operate solely at the epistemological level; it manifests to subjects as a tangible reality that can be sensed and felt, particularly through the faces of intimate others. Therefore, a critical engagement with power must extend into the ontological dimension. This study advocates for broadening the understanding of power from the epistemological to the ontological register, emphasizing the subtleties of its operation.

Keywords: power, subjection, affective attachment, the good life, Butler, Berlant

- 논문투고일 : 2025. 09. 10
- 심사완료일 : 2025. 09. 30
- 게재확정일 : 2025. 10. 07

